

# 코로나 '취미 열풍'...광주 나무 매출 올랐다

### 2년 연속 증가세...최다 판매 건수 감나무 1위·샤인머스켓 4위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4월 말까지 '나무전시판매장' 중점 운영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 나무시장 매출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색 과일로 인기를 끈 포도 품종 샤인머스켓은 지난해 유실수 판매 건수 4위에 올랐다. 27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무전시판매장(나무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7% 가량 증가했다. 광주 나무시장 매출은 지난 2019년 4% 감소한 뒤 이듬해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나무 구매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고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철호 광주전남본부장은 "나무시장은 6~7개

품종을 2~3주씩 소량으로 사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이 늘고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이 대거 조성되면서 나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나무시장 최다 판매수종은 '감'이었다. 감 가운데서도 대봉감, 태추감, 차량감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대추나무(왕대추·사과대추)와 호두가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샤인머스켓이 사과(5위)를 제치고 4위에 들었고, 매실, 체리, 복숭아, 석류 순으로 많이 팔렸다. 조경수 최다 판매는 철쭉이 차지했고 황금측백(2위)→회향목(3위)→사철나무(4위)→편백

(5위)→장미(6위)→남천(7위)→개나리(8위)→옥향(9위)→수국(10위)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여 동안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중점 운영한다. 중점 운영기간이 끝나도 나무 판매는 연중 진행된다. 나무시장에서는 광주·전남 14개 산림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묘목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판매된다. 여기서는 다른 나무시장이나 화원보다 10% 안팎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조경자재와 친환경 비료, 화분 등도 판매하며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구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만4080㎡(4260평) 규모로 조성된 올해 나무시장에서는 유실수, 조경수, 조림용 수묘와 잔디 등 200여 종, 11만그루를 전시 판매한다. 유실수로는 가정에서 심기 좋은 매실, 대추, 감,

모과, 살구, 자두, 앵두나무 등이 구비됐다. 대표적인 관상수인 단풍나무, 금(은)복서, 주목, 반송, 산다화, 명자나무, 회향목 등도 있다. 장미, 철쭉 목련, 라일락, 홍도화 등 꽃나무도 상춘객을 맞는다. 산림조합이 재배한 생표고버섯과 종균 집중목도 마련됐다. 한편 올해 묘목(아린 나무) 가격은 비료 등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영향을 받아 10% 가량 상승했다. 6월20일께 수확하는 체리나무 1주 가격은 올해 6000원으로, 전년보다 9.1%(500원) 가량 올랐다. 작은 전리향 화분은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5.4% 상승했다. 생산인력이 줄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감나무는 1인당 5주씩 구매량을 제한했다.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야 나무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쉬는 날 없이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에 광주농협들 방역물품 지원

### 자가진단기·생필품 등

광주지역 농협들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자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방역물품을 무상 지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송정농협과 광주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생필품을 잇달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정농협은 지난 23일 조합원 1500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기 5개와 방역마스크 5매를 각각 전달했다. 광주농협은 조합원 2300여 명에게 2억3000만원 상당 생활물품을 전했다. 전달 물품에는 방역마스크와 라면, 화장지, 세제 등이 포함됐다.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정기 이사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운데)와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회장 박민숙)는 지난 25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2022년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1분기 이사회'를 열고 농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봉사 계획을 세웠다. 이 단체에는 전남 8000여 명 등 전국 4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담양 딸기 농가 스마트팜 앞당긴다



농협 구례교육원 기영운(맨 오른쪽) 원장이 담양군 수북면 농업회사법인 원스베리(주)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윤두현(맨 왼쪽) 대표로부터 스마트팜 설명을 듣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농협 구례교육원 기술교육 협력

농협 구례교육원이 담양 스마트팜 딸기 재배기술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 구례교육원은 기영운 원장과 윤두현 원스베리(주)대표가 최근 '농업혁신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협력·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원스베리(주)는 전남 딸기 클러스터사업단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이다. 담양 21개 딸기 재배 농가가 참여하며 생산과 가공·수출 등에 협력하고 있다. 이 법인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정한 첨단기술공공실습장을 마련해 스마트팜 기술교육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미래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확대한다. 윤 대표는 "농업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 원장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도농 소득격차로 어려운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지털농업 확산"이라며 "농협 구례교육원은 임직원과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나주조합공동법인, 사업판매 1천억 달성탑 수상

### 3년 연속 1000억원 달성

농협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해 1290억원 상당 원예농산물을 판매하며 '농협경제지주 2021년 연합사업판매' 1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박서홍 전남본부장이 박영웅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에게 달성탑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연합사업판매 달성탑은 연합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한 임직원에게 주어진다.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3년 연속 연합사업

판매 1000억원 달성해왔다.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13개 농협이 나주 조합법인을 통해 통합(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강화했다. 지난해 매출은 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10.3%(120억원) 증가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한 농축산물 판매성장을 위해 연합사업조직 품목 마케팅 강화에 힘쓰겠다"며 "온라인 사업 판매채널 등을 통해 연합판매사업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편 지난해 377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전남농협 연합판매사업은 올해 7.4% 늘린 4000억원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참여조합 비율은 전년 42.0%에서 올해 4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연계마케팅도 강화한다. 강진·장흥·화순 생산조직이 동진 파프리카 연합과 ▲보성·곡성·영광 '감자' ▲해남·영암·나주·영광 '고구마' ▲담양·장흥·화순·보성 '블루베리' 등이 중점 육성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